

<2012년 6월 4일 월요일 새벽 잠언> 5월 6일 잠언 ; 5월 9일 도착

1.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자는 절대적으로 때를 정하시고 이 땅에 구원역사와 뜻을 펴신다.
2. 때를 정하시고 행하심은 질서다.
3.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고,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전해 주어 준비하게 하시고, 때가 되었을 때 성자를 보내어 뜻을 행하게 하신다. 성자는 땅에서 택한 자를 자신의 욕으로 삼고 순서별로 하나하나 행하신다.
4. 때는 하나님이 정하셨으니, 한 때 두 때 반 때로 그 기본을 정했다.
5. 한 때 두 때 반 때를 계산하면 한 때는 1년, 두 때는 2년, 반 때는 6개월이다. 총 3년 6개월이다. 달수로 계산하면 42달이다. 날수로 계산하면 1260일이다. 이 기간을 시대와 때에 따라 1일을 1년으로 환산하여 그 시대에 맞는 역사로 적용한다.
6. 3년 6개월을 기본으로 하여 시대에 따라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한 때 두 때 반 때의 기간을 정하시고 행하신다. 이 기간을 형벌 기간, 무덤 기간, 고역 기간, 암흑 기간이라 하고, 혹은 부활 기간, 예비하는 기간이라고 한다. 조건을 세워 벗어났을 때는 하나님 역사 기간이라고 한다.
7. 한 때 두 때 반 때 기간은 개인, 가정, 민족, 세계형으로 그 해당되는 것이 다르다. 클수록 크게 확대해서 적용된다.
8. 아담과 하와의 타락 후 구약의 세계형 형벌 기간은 한 때 두 때 반 때의 기간을 확대한 4000년이다. / 성자의 초림 때 메시아 나사렛 예수님을 죽인 신약의 세계형 형벌 기간은 2000년이다. 이 기간은 형벌 기간이면서도 종에서 자녀로 복직하는 구원역사 기간이었다. 부활기였다.

9. 한 때 두 때 반 때는 시대에 따라 개인형, 가정형, 민족형, 세계형으로 환산 풀이를 해야 된다.

10. 개인형 한 때 두 때 반 때 기간은 3일 반, 40일, 혹은 3년 6개월, 7년, 10년, 21년, 40년이 되기도 한다.

11. 민족형 한 때 두 때 반 때 기간은 40년, 혹은 70년, 120년, 210년, 400년이 되기도 한다.

12. 세계형 한 때 두 때 반 때 기간은 4000년, 혹은 2000년, 혹은 1000년이 되기도 한다.

13. 민족형 한 때 두 때 반 때 기간은 크면 100단위로 120년, 210년, 400년 등이다. 작으면 10단위로 40년, 70년 등이다. / 개인형 한 때 두 때 반 때 기간은 크면 42년, 40년, 21년, 14년, 10년 등이다. 작으면 1단위로 7년, 4년, 3년 6개월, 혹은 3일 반이다.

14. 구원받을 자가 책임분담을 못 할 때는 그 시대에 하늘이 보낸 자가 성자와 함께 대신 형벌을 받고 희생하여 살린다.

15. 그 시대에 해당되는 한 때 두 때 반 때의 형벌 기간이 끝나야, 그에 해당되는 하늘에서 보낸 자가 나타난다.

16. 신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보낸 중심인물들도, 사사들도, 왕들도, 선지자들도, 메시아 나사렛 예수님도 모두 한 때 두 때 반 때가 지나고 나타났다.

17. ‘때’를 알면 그 때에 해당되는 자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된다.

18. 시대마다 그 시대 해당되는 자가 나타난다.

19.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자는 때가 되어 온 것이다.

20. 전능자 하나님은 때가 되기 전에도 안 하시고, 때가 지난 후에도 안 하신다. 꼭 그 때에 맞춰 사람을 보내서 행하신다.

21. 그 시대 사람들이 조건을 못 세우면 조건을 세울 때까지 역사를 펴 나가시다가, 사람들이 조건을 세우면 그때는 정한 때에 할 일을 행하신다.

22. 요셉은 17세 때 이집트로 팔려 갔다. 그리고 이집트에서 한 때 두 때 반 때 기간인 1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. 이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“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” 한 대로 1일을 1년으로 확대하여 10년 동안 환난을 받으며 한 때 두 때 반 때 기간을 보냈다. 그리고 또 감옥에서 한 때 두 때 반 때 기간인 3년 6개월 동안 환난을 받았다. 그 후 요셉이 30세가 되었을 때 이집트의 총리대신이 되었다. 나사렛 예수님도 30세 때 메시아 왕위에 올라 구원의 일을 하셨다.

(계 2:10) 『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』

23. 역사의 주인은 한 때 두 때 반 때의 주인이다.

24.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. 그 후 한 때 두 때 반 때 기간인 400년이 지나고 나사렛 예수님이 나타났다.

25. 종교 개혁자 루터는 신약의 마지막 선지자다. 그 후 한 때 두 때 반 때 기간인 400년이 지나면, 성약 역사를 펴며 인생들을 구원할 새로운 역사의 인물이 성자와 함께 나타난다. (루터가 1546년에 죽었으니 그 후 400년이 지나면

새 시대 새 인물이 나타난다.)

26. 때가 안 돼서 오는 자는 그 시대 역사의 주인이 아니다.

27. ‘하나님의 역사’는 밤과 낮같이 절대적으로 ‘때’를 두고 교체하며 역사가 흘러왔다.